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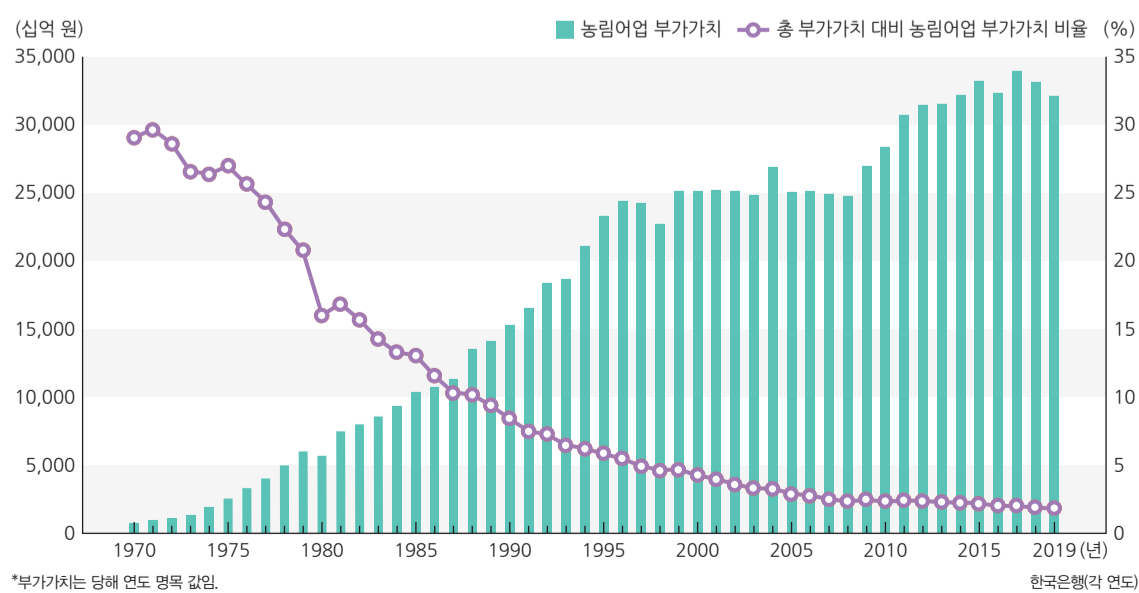
농림어업 및 광업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림어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인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볼 때, 농림어업 부가가치 규모를 당해 연도 명목 값의 변화로 살펴볼 때, 1970년대 후반까지 5조 원 규모를 밀돌던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2010년 이후 약 30조 원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전체 산업을 고려한 총 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예를 들어, 1970년에는 총 부가가치에서 농림어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였지만, 2010년에는 약 2.4%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 이후로도 그 값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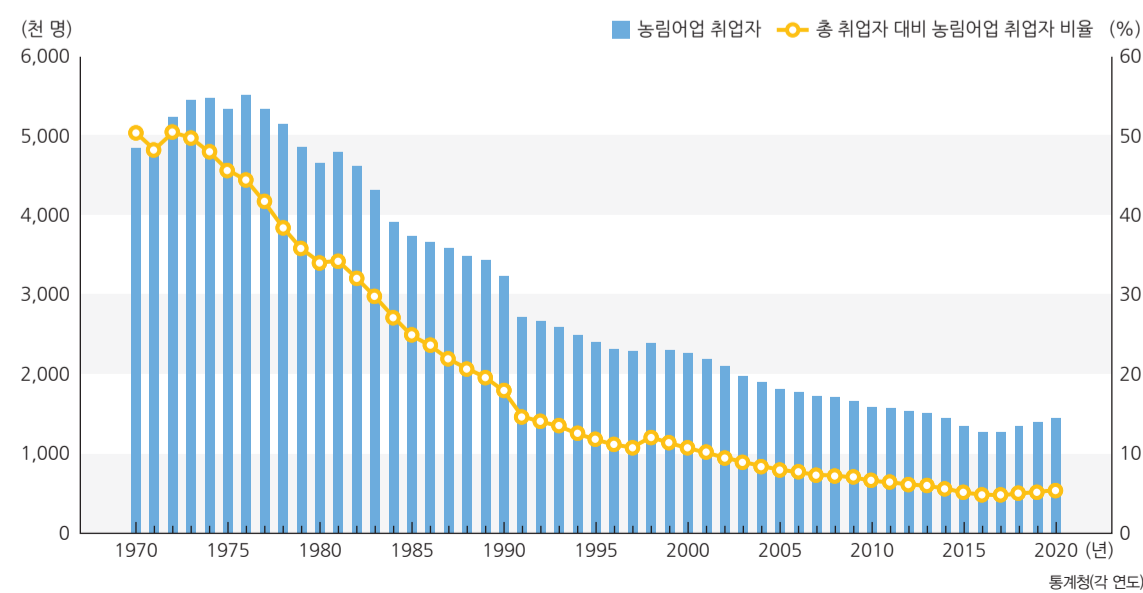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70년 약 485만 명에서 2020년 약 145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도 1970년 약 50%에서 2020년 5.4%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귀농·귀어·귀산촌 인구와 함께 청년 세대 농림어업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COVID-19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농림어업 분야가 새로운 비대면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어업 부가가치와 취업자의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018년 농림어업 부가가치 규모는 경북(약 55조 원), 전남(약 52조 원), 충남(약 41조 원), 경남(약 40조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 시·도별 총 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율은 제주(약 9.9%), 전남(약 7.9%), 전북(약 7.7%), 경북(약 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0년 농림어업 취업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 취업자 수는 경북이 약 52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임업 취업자 수는 강원이 약 6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어업 취업자 수는 전남이 약 3만 8천 명으로 가장 많다.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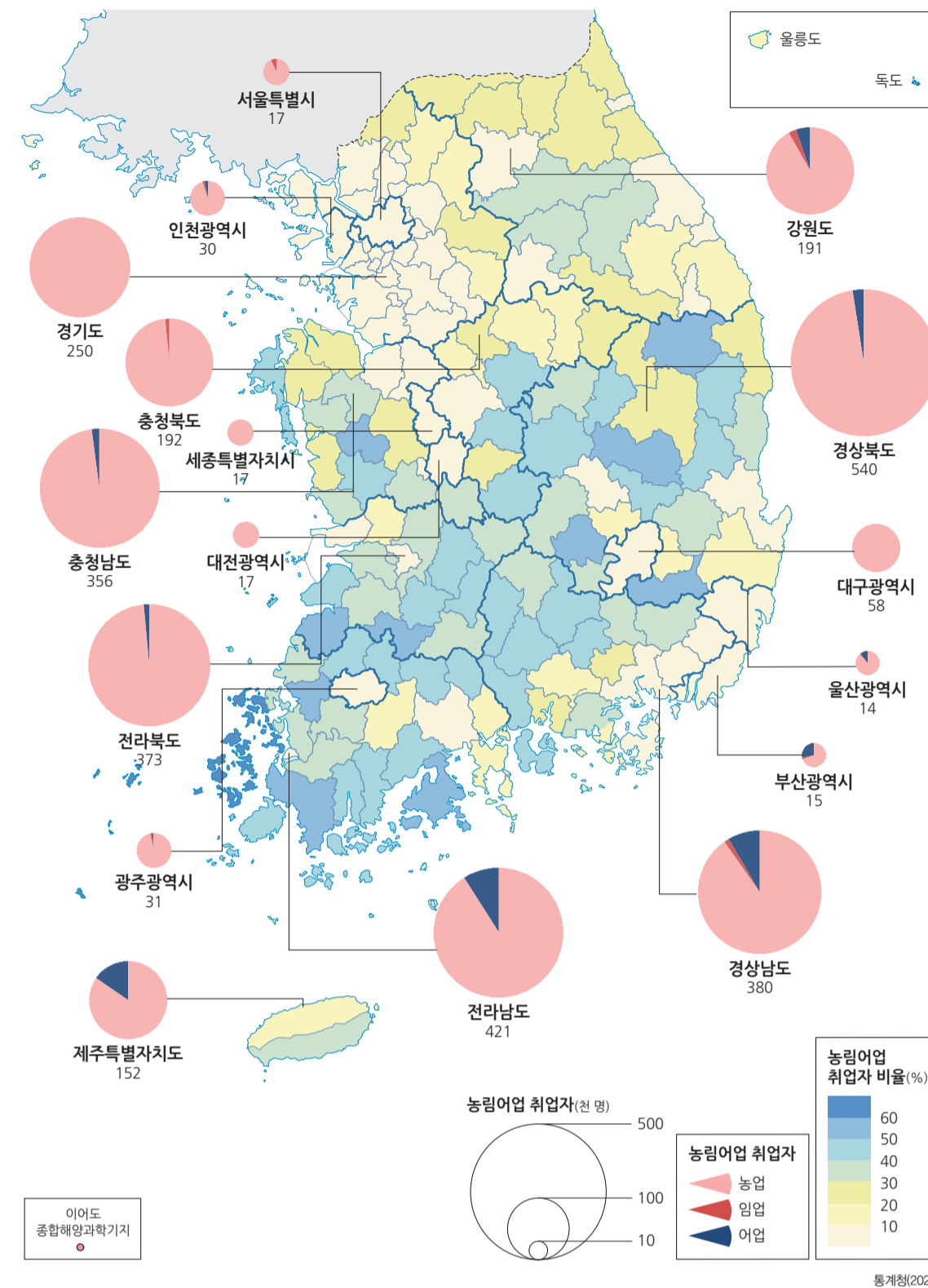


농림어업 취업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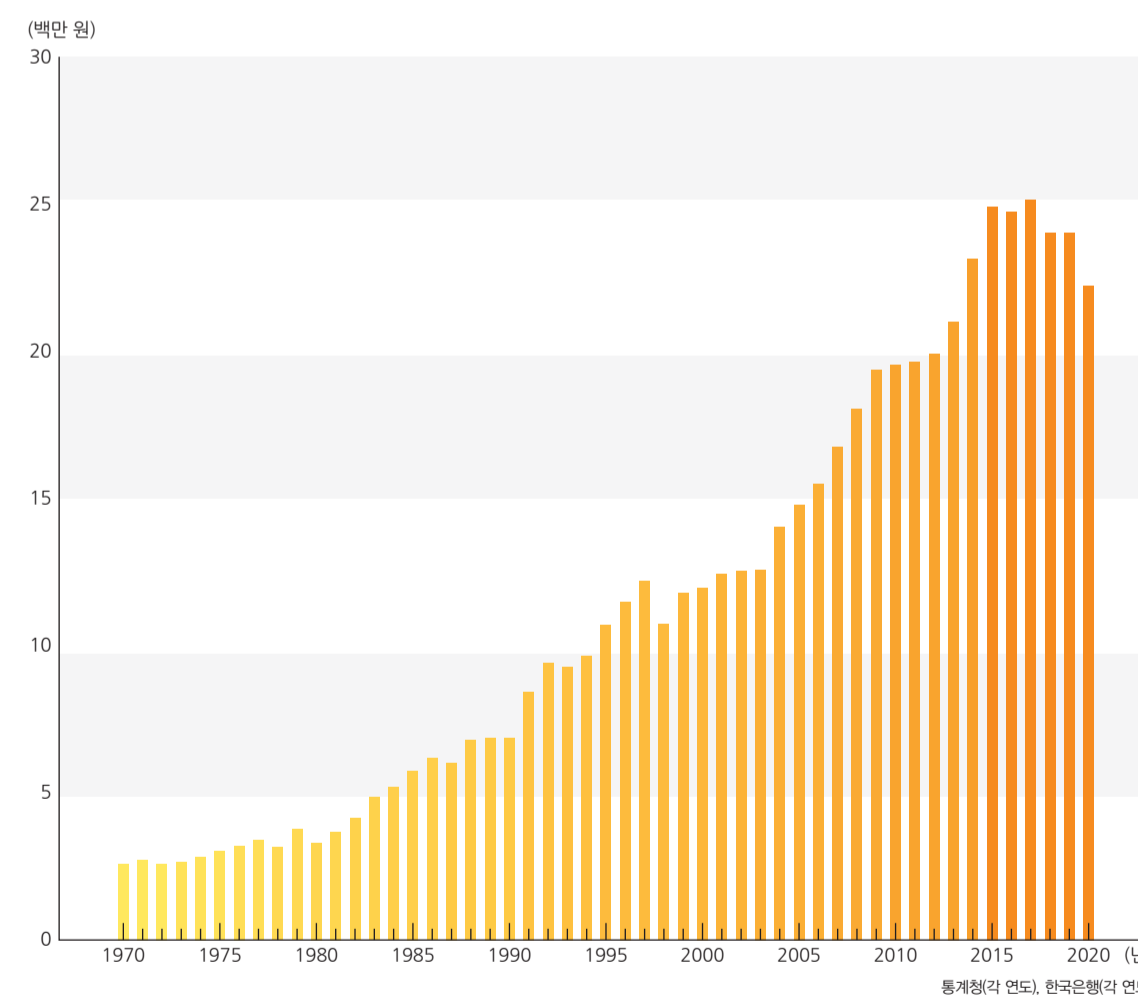


농림어업 개관

농림어업 취업자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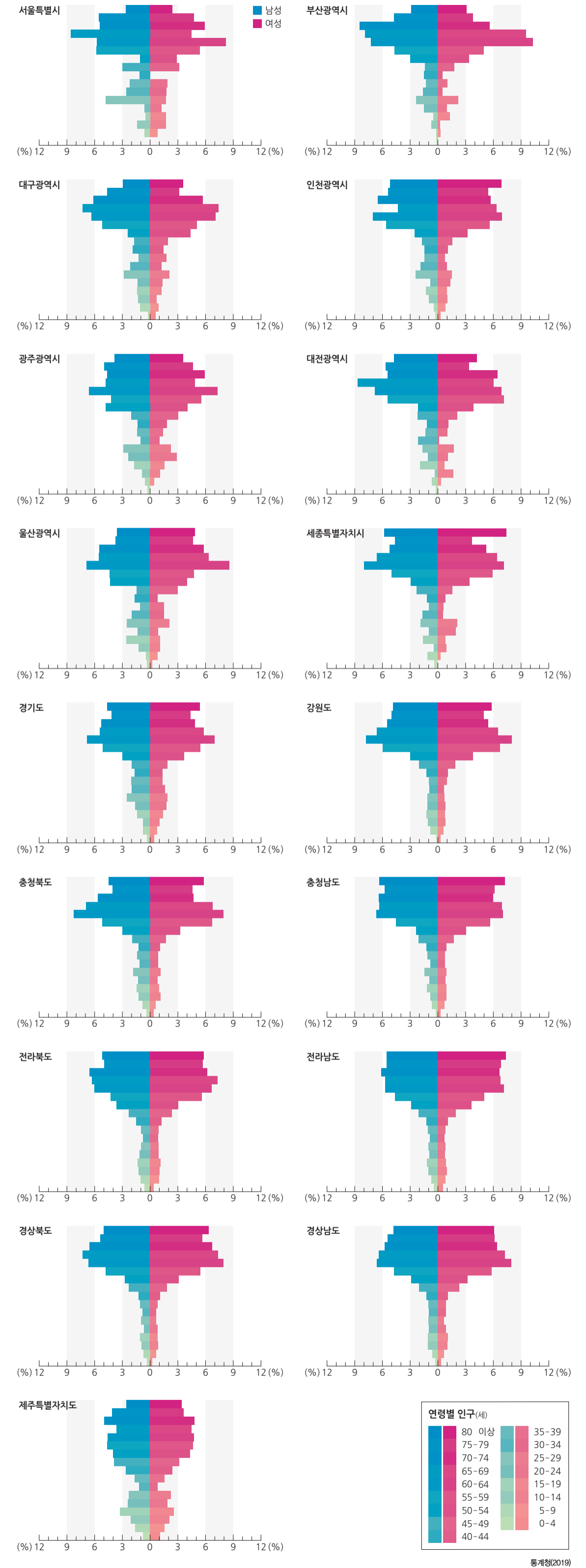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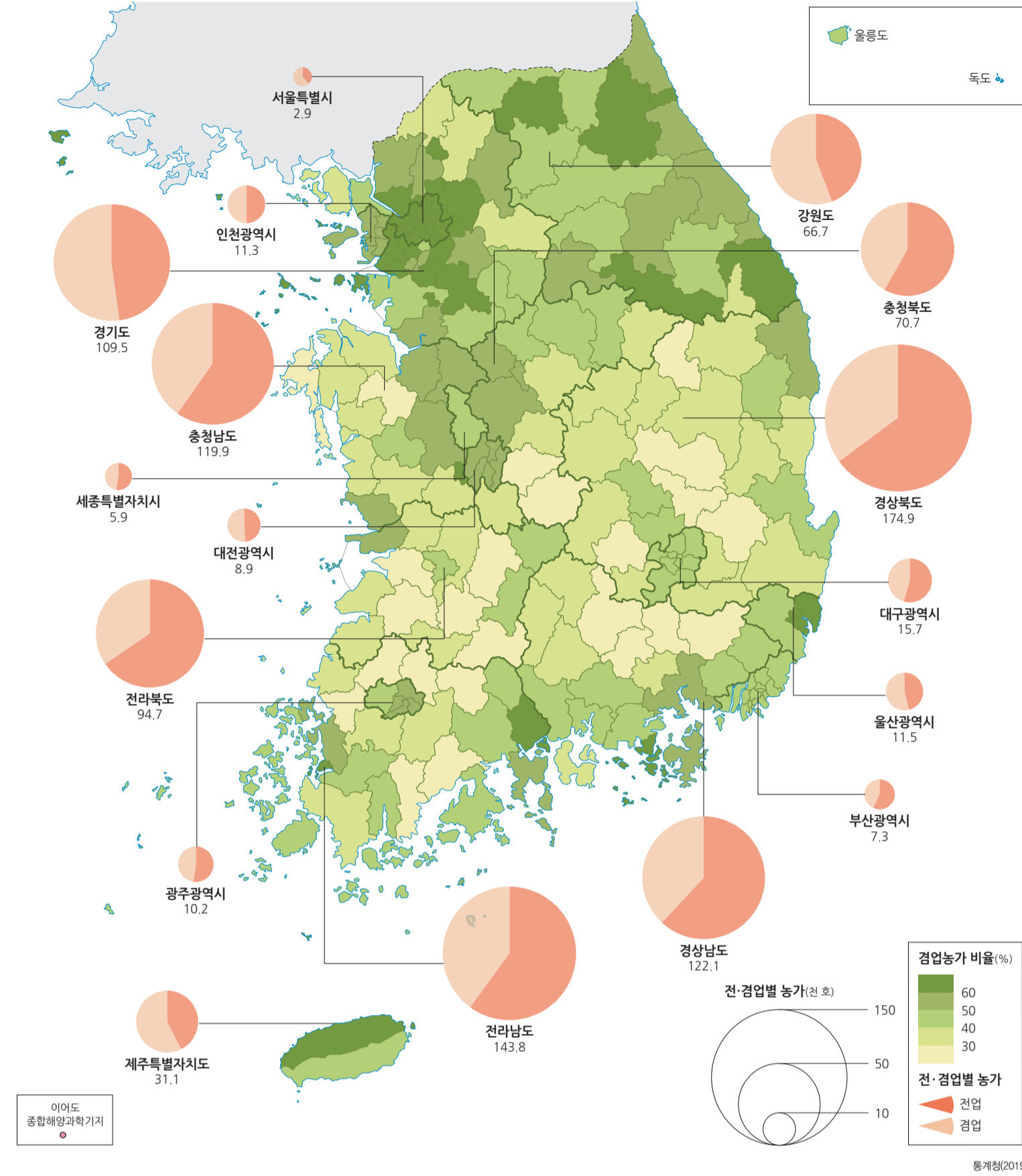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970년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약 256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약 2천 2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 구조를 시·도별로 파악해보면,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농가 인구 구조의 형태가 버섯 모양을 띠었다. 이는 우리나라 농가 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하게도 10대와 20대 농가 인구 비율은 제주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제주로 이주한 청년 세대 인구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농가 인구와 어가 인구, 임가 인구를 합친 농림어업 인구를 2010년과 2019년 두 시기 동안의 변화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농림어업 인구 비율은 2010년 약 31%에서 2019년 약 46%로 증가했다.

농가 인구 구조(2019년)



농업 경영의 변화

전·겸업별 농가(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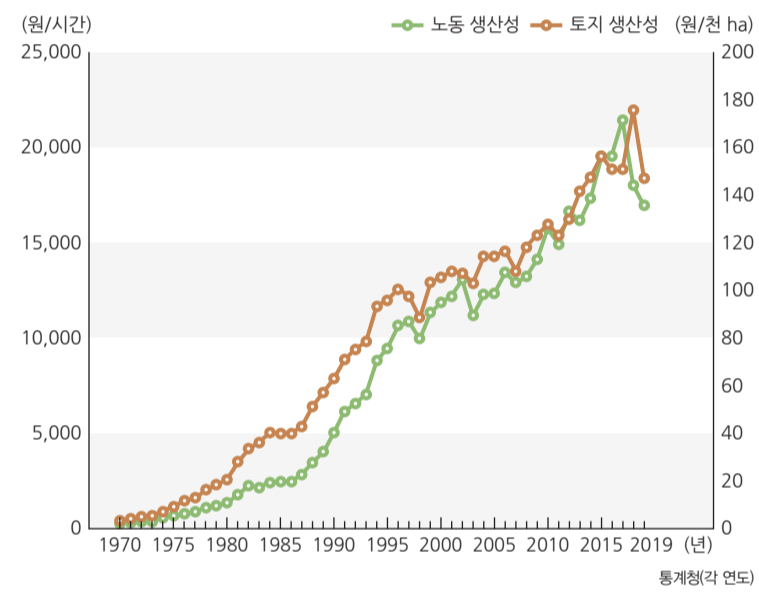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업 경영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전·겸업농가 분포를 지도화하였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전체 농가 수에서 겸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단계 구분도로 표현해 보면, 인천 용진군(82.5%), 안양(80.5%), 오산(79.0%), 부천(78.5%) 순으로 겸업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시·도별 전·겸업농가 수를 파이 그래프 그려보면,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의 겸업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도 중에서는 제주의 겸업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전업농가 비율은 전북과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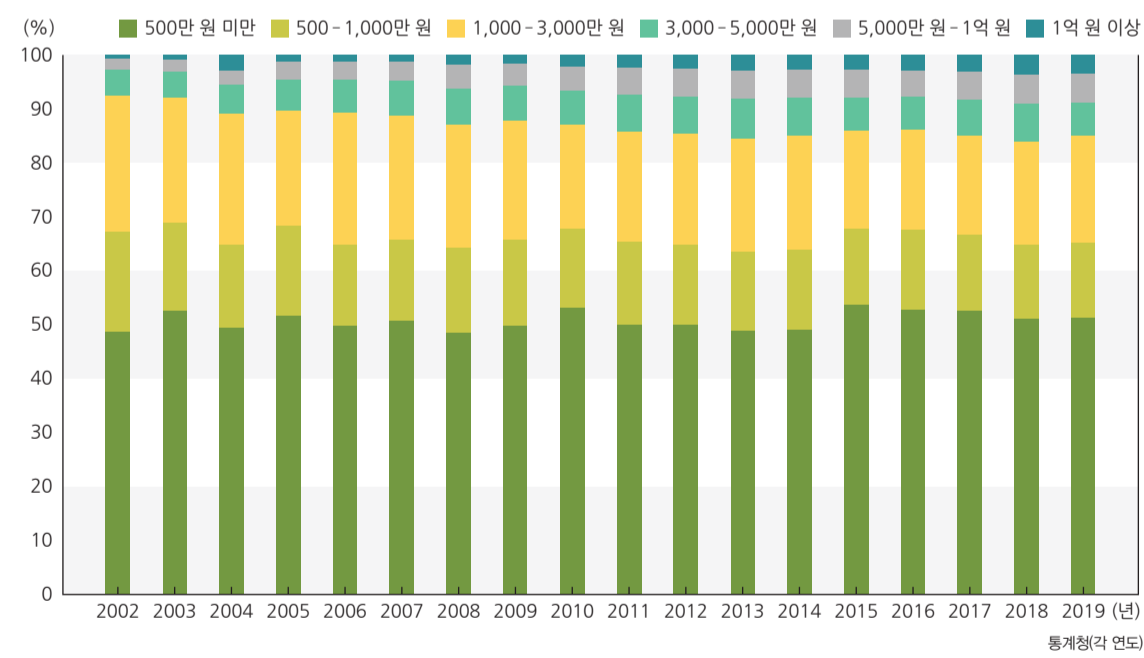
겸업농가는 농업 수입이 농업 외 수입보다 많은 1종 겸업농가와 농업 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로 구분된다. 1970 - 2019년간 우리나라의 전·겸업농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2년에는 14.8%로 매우 낮았던 겸업 비율이 1990년대 이후부터 빠르게 높아져서 2013년에는 46.8%까지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1970 - 2019년간 전업농가 수 감소율(연평균 -2.1%)이 겸업농가 수 감소율(연평균 -1.3%)보다 컸다.

2002 - 2019년간 판매 금액별 농가 수 변화를 보면 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의 수와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 매출 5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로 높아 농가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농업의 상업화 경향에 따라 채소나 과수 재배 농가보다 벼농사 중심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와 영농 기술의 발전 등으로 과거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토지 생산성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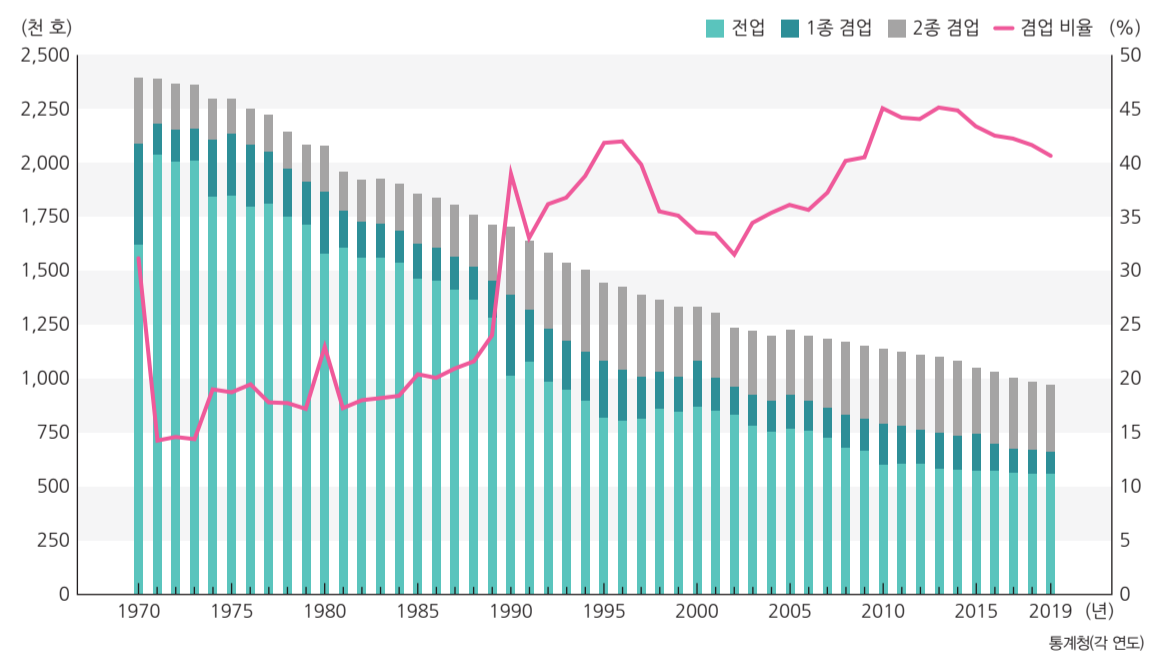
농가의 농업 생산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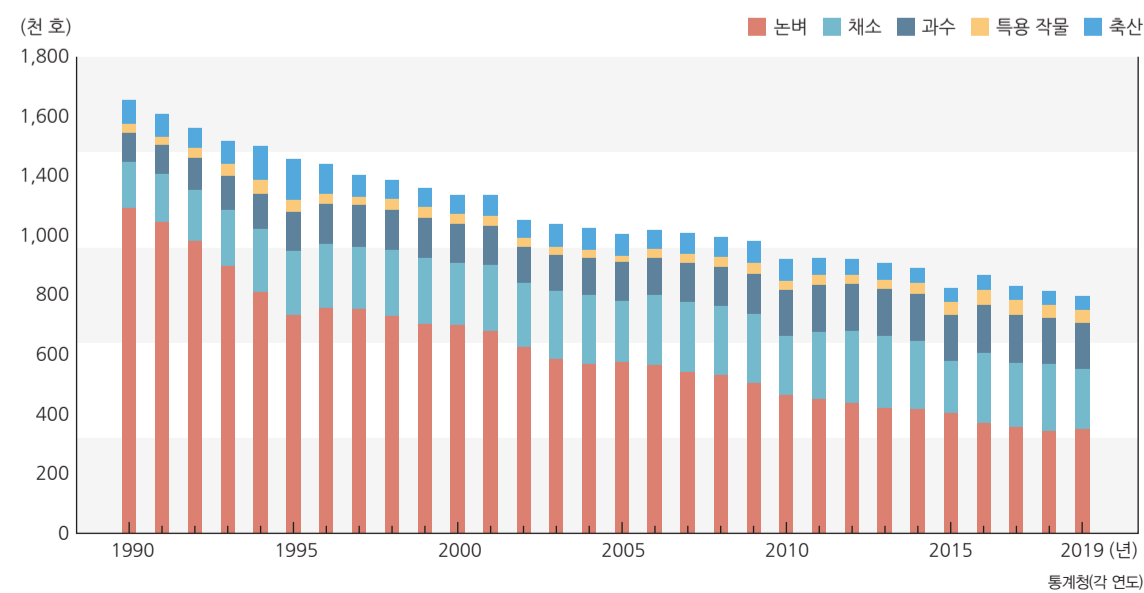
판매 금액별 농가 수 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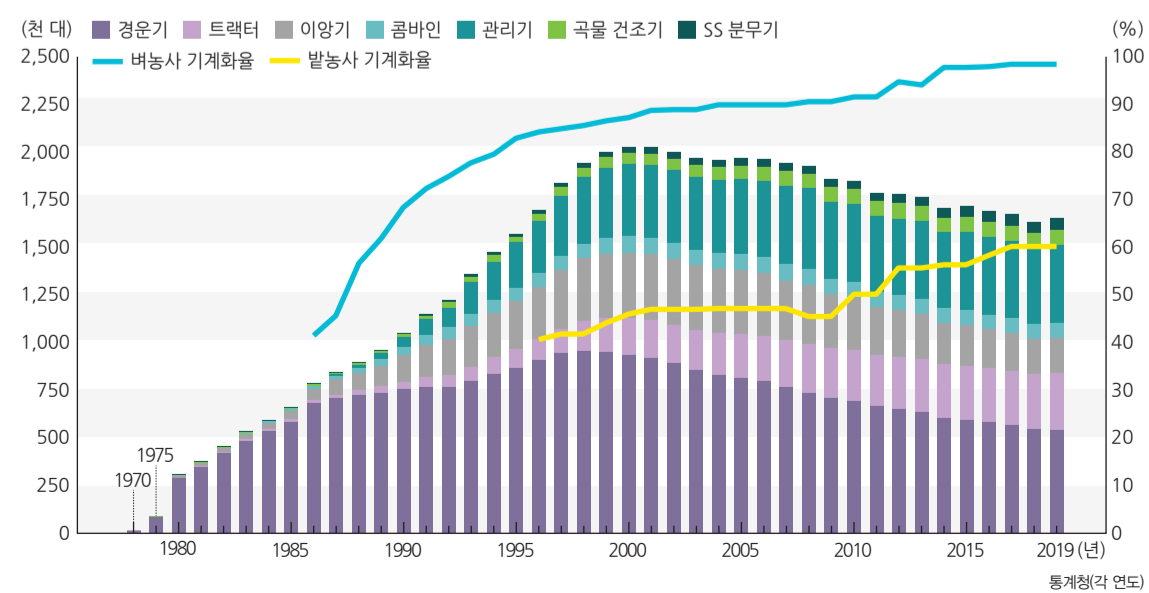
전·겸업별 농가 구성 변화



영농 형태별 농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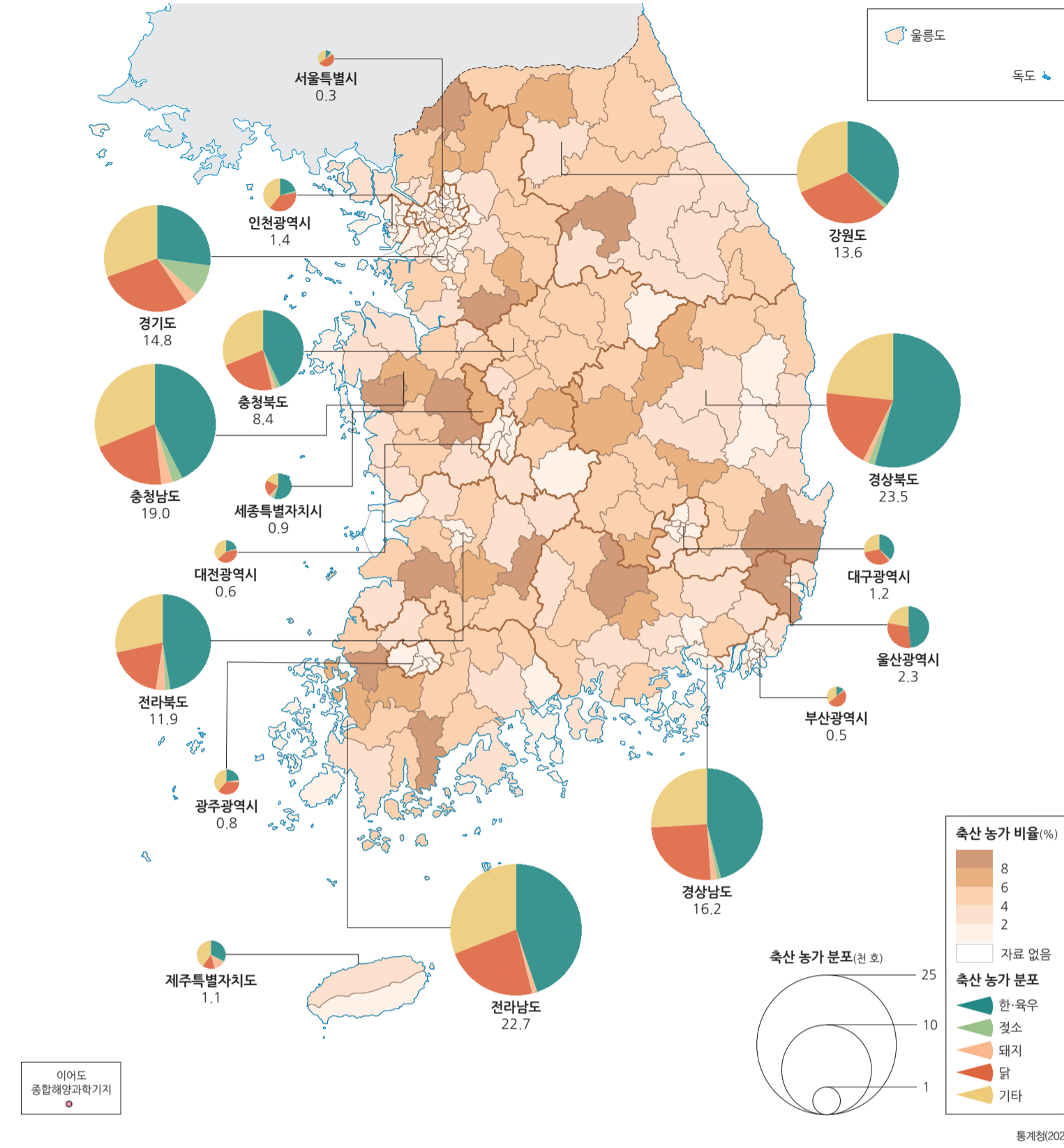


농업의 기계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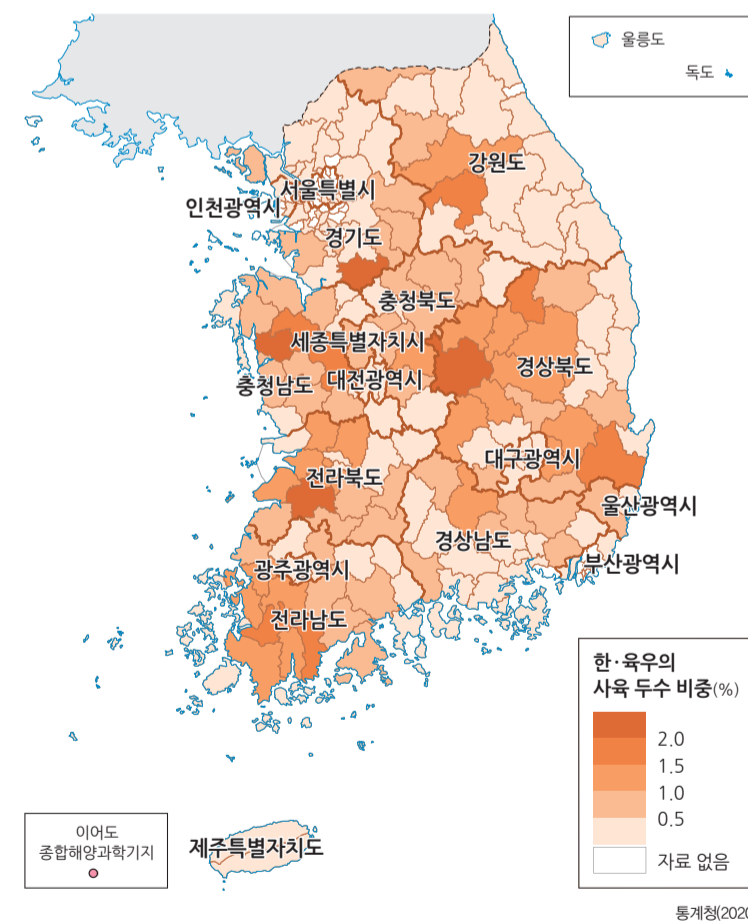


축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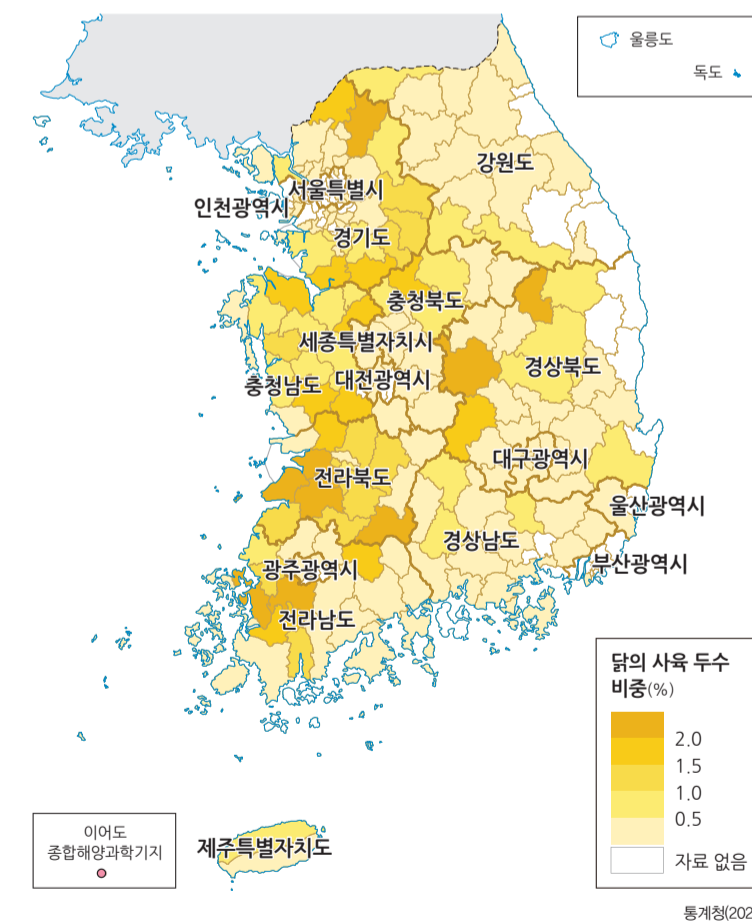
축산 농가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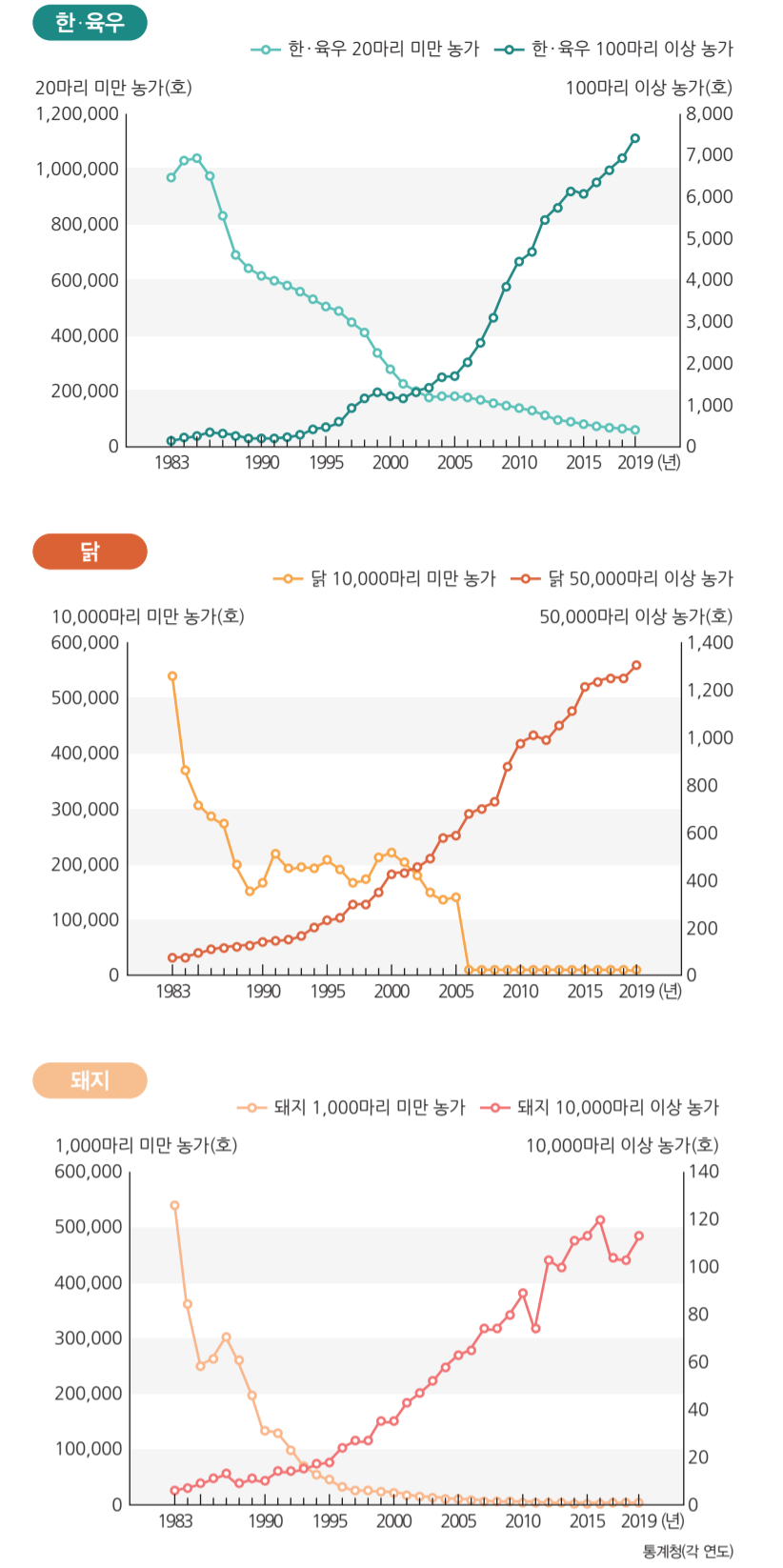
한·육우의 사육 두수 비중(2020년)



닭의 사육 두수 비중(2020년)



주요 가축의 사육 규모별 가우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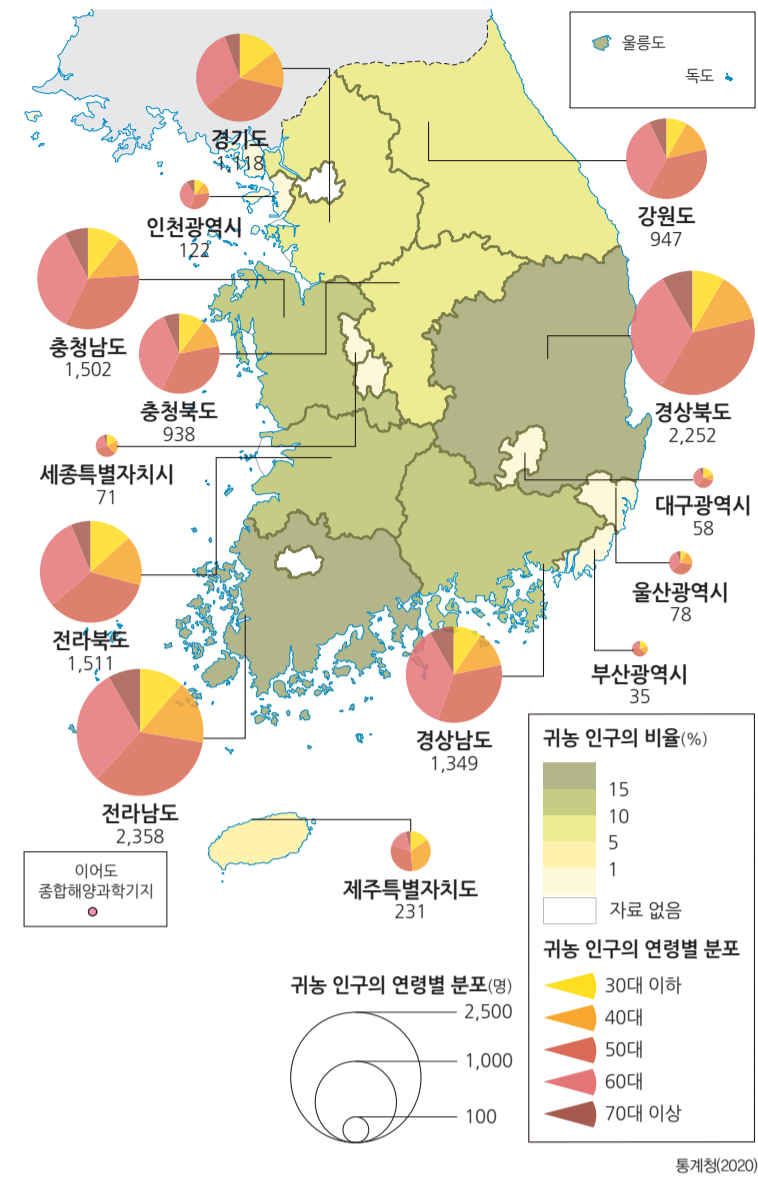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부문 중 하나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에서 축산을 전업으로 하거나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축산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3%이다. 축산 농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 뚜렷한 지역적 집중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육 규모가 큰 축산 농가들은 지역적으로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육우와 닭, 돼지를 사육 규모별로 구분하여 농가 수 변화를 살펴보면, 1983 - 2019년 동안 사육 규모가 큰 농가 수는 증가한 반면, 사육 규모가 작은 농가 수는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점차 기업화·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규모 축산이 발달할수록 축산 공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규모 축산 농가의 입지 제약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축산 농가의 대규모화 및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점차 축산업의 지역적 특화 경향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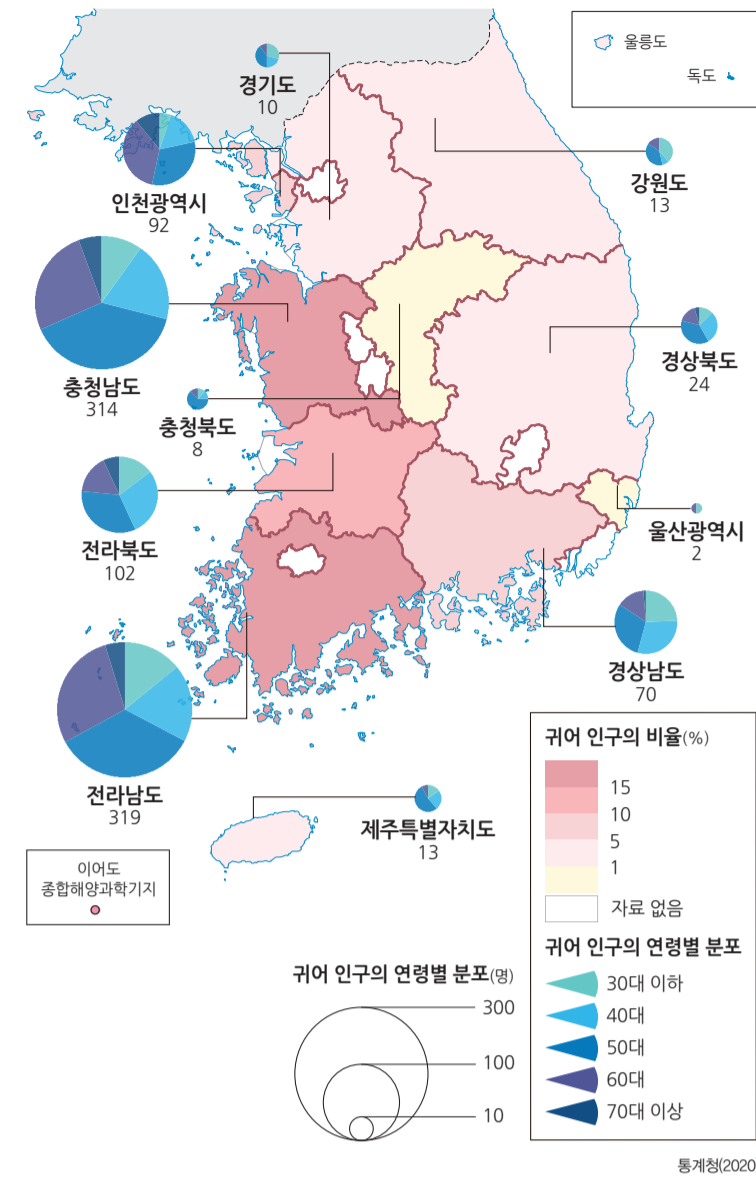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축산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황성(13.9%), 합천(11.2%), 홍성(10.9%), 안성(10.1%), 연천(9.4%), 공주(9.3%)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시·도별 축산 농가 수를 한·육우와 닭, 돼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육우 사육 농가는 경북이 가장 많다. 그리고 닭 사육 농가는 전남이 가장 많으며, 돼지 사육 농가는 충남이 가장 많다. 한·육우와 닭, 돼지의 전국 대비 지역 내 사육 비율을 살펴보면, 한·육우는 정읍, 안성, 상주, 홍성, 경주 순으로, 닭은 영주, 무안, 남원, 상주, 정읍 순으로, 돼지는 홍성, 이천, 제주, 정읍, 안성 순으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귀농·귀어·귀촌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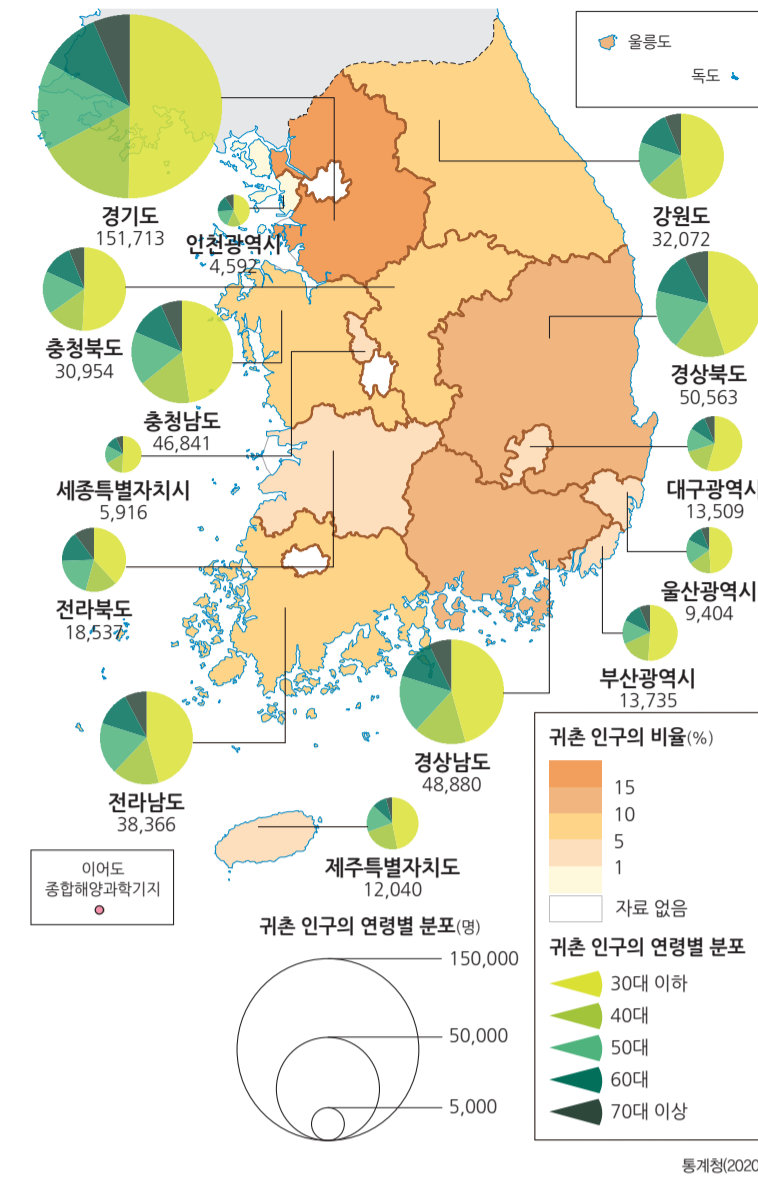
귀농 인구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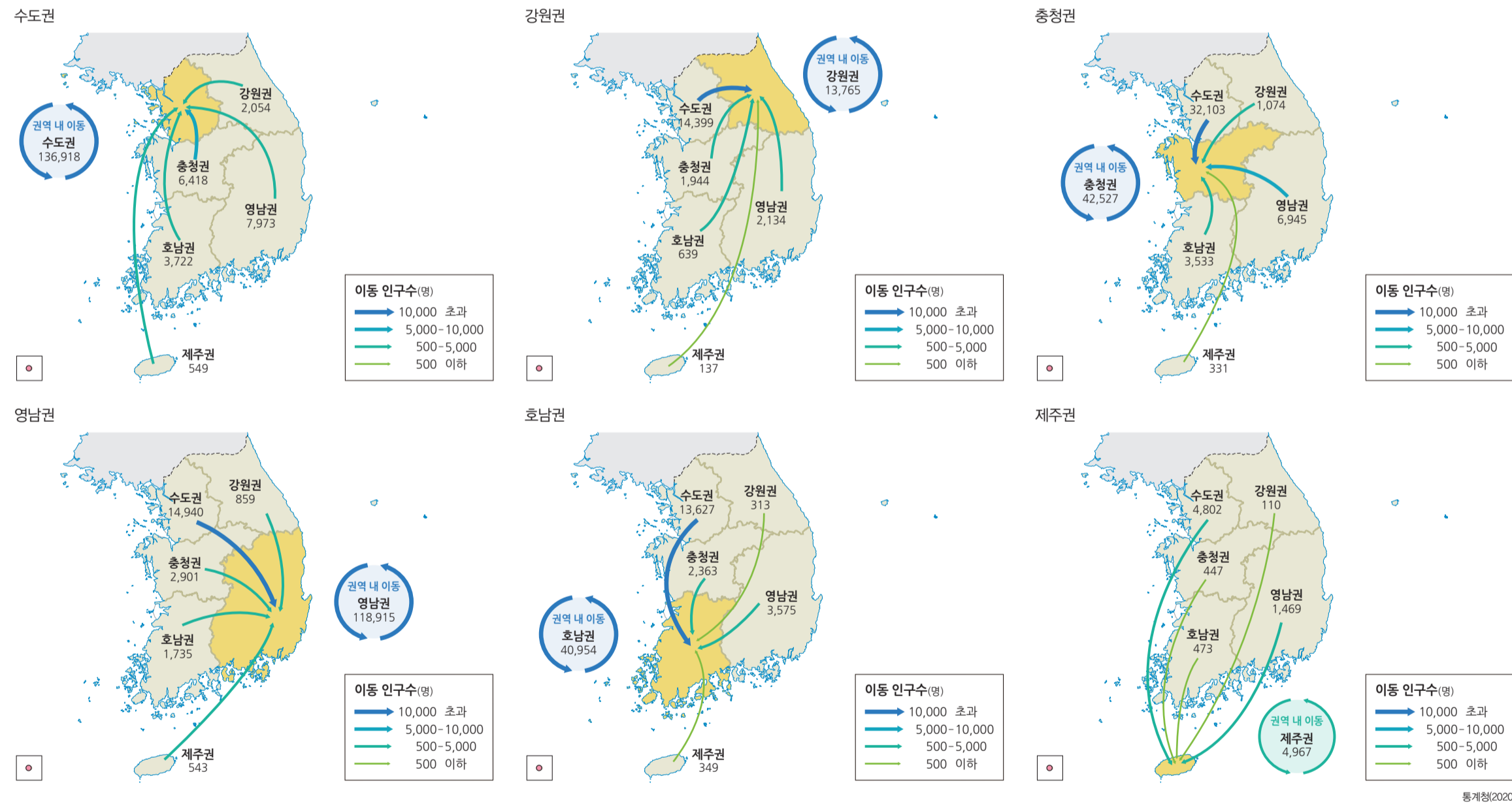
귀어 인구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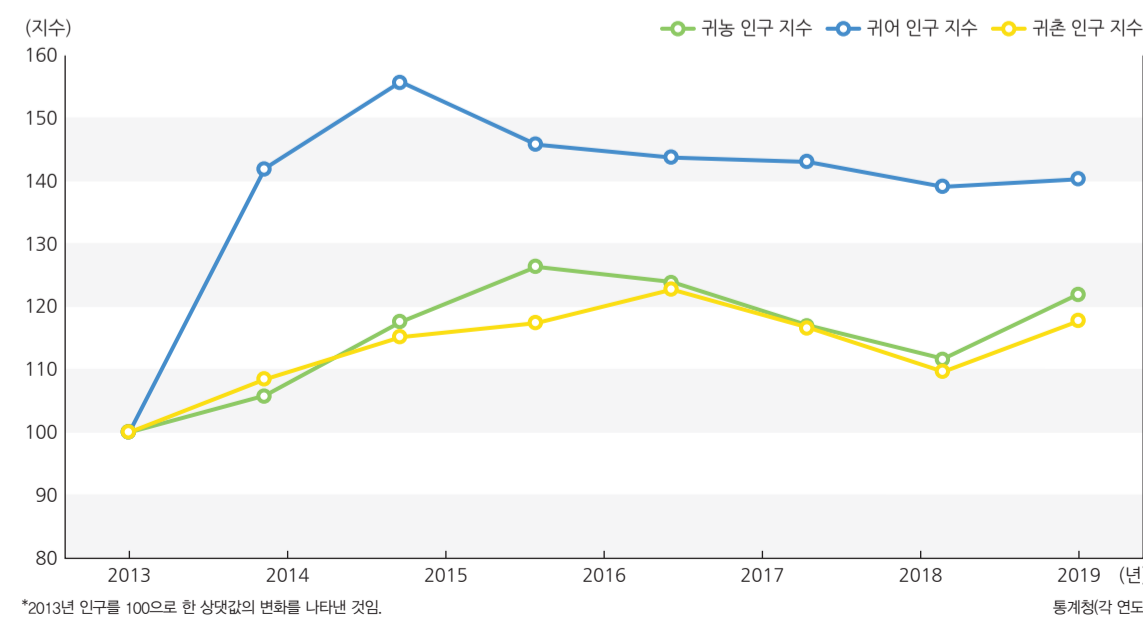
귀촌 인구의 분포(2020년)



귀농·귀어·귀촌 인구의 유입 지역(2020년)



귀농·귀어·귀촌 인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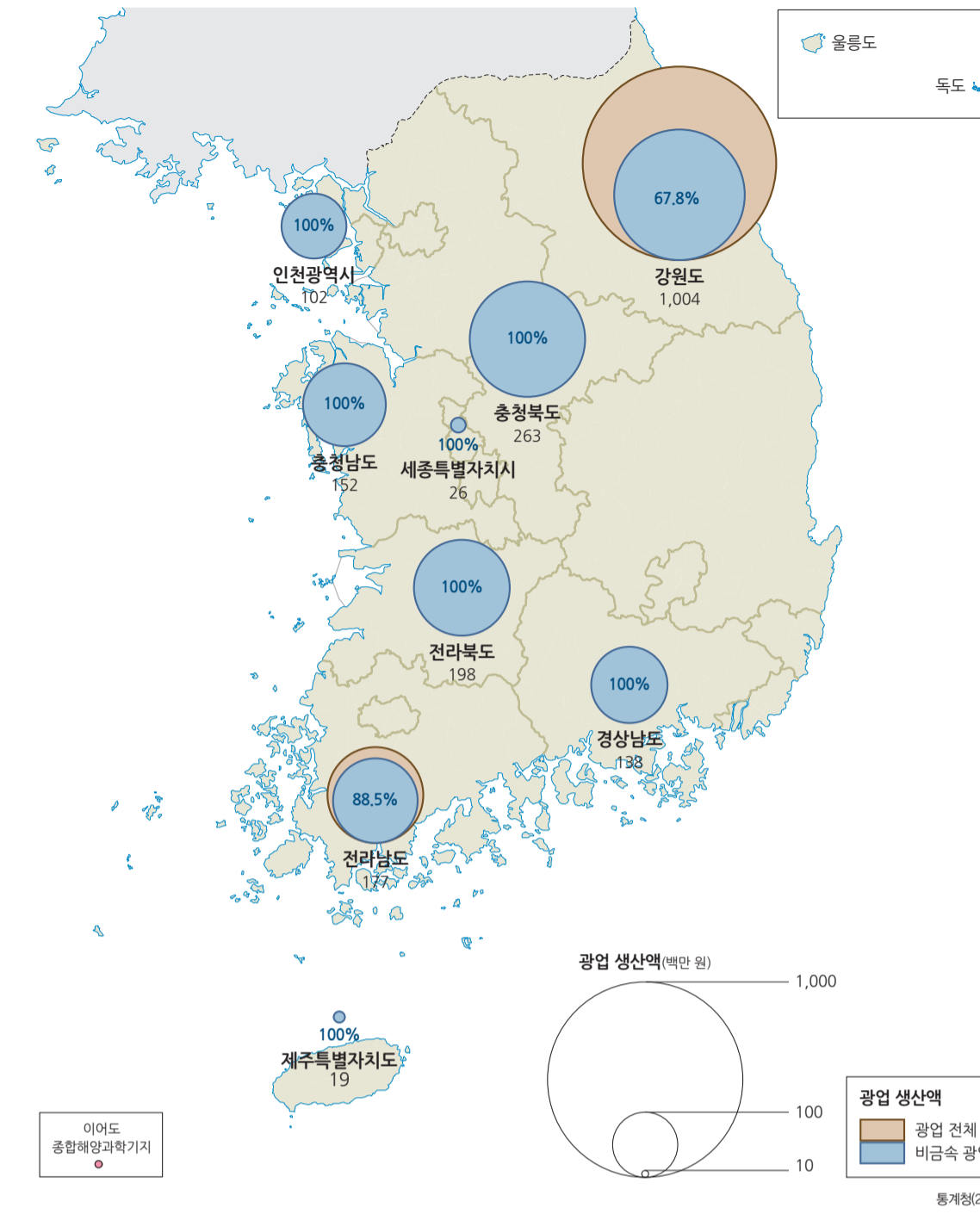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읍(邑)·면(面)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1.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하고, 2.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어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어업경영체, 어업허가등록대상 등에 등록된 사람을 귀어인이라고 하며, 학생, 군인, 일시적 직장 이동, 귀농·귀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귀촌인이라고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귀농·귀어·귀촌 인구 비율은 전남(18.8%), 경북(17.9%), 전북(12.0%), 충남(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귀어 인구 비율은 전남(33.0%), 충남(32.5%), 전북(10.5%), 인천(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촌 인구 비율은 경기(31.8%), 경북(10.6%), 경남(10.2%), 충남(9.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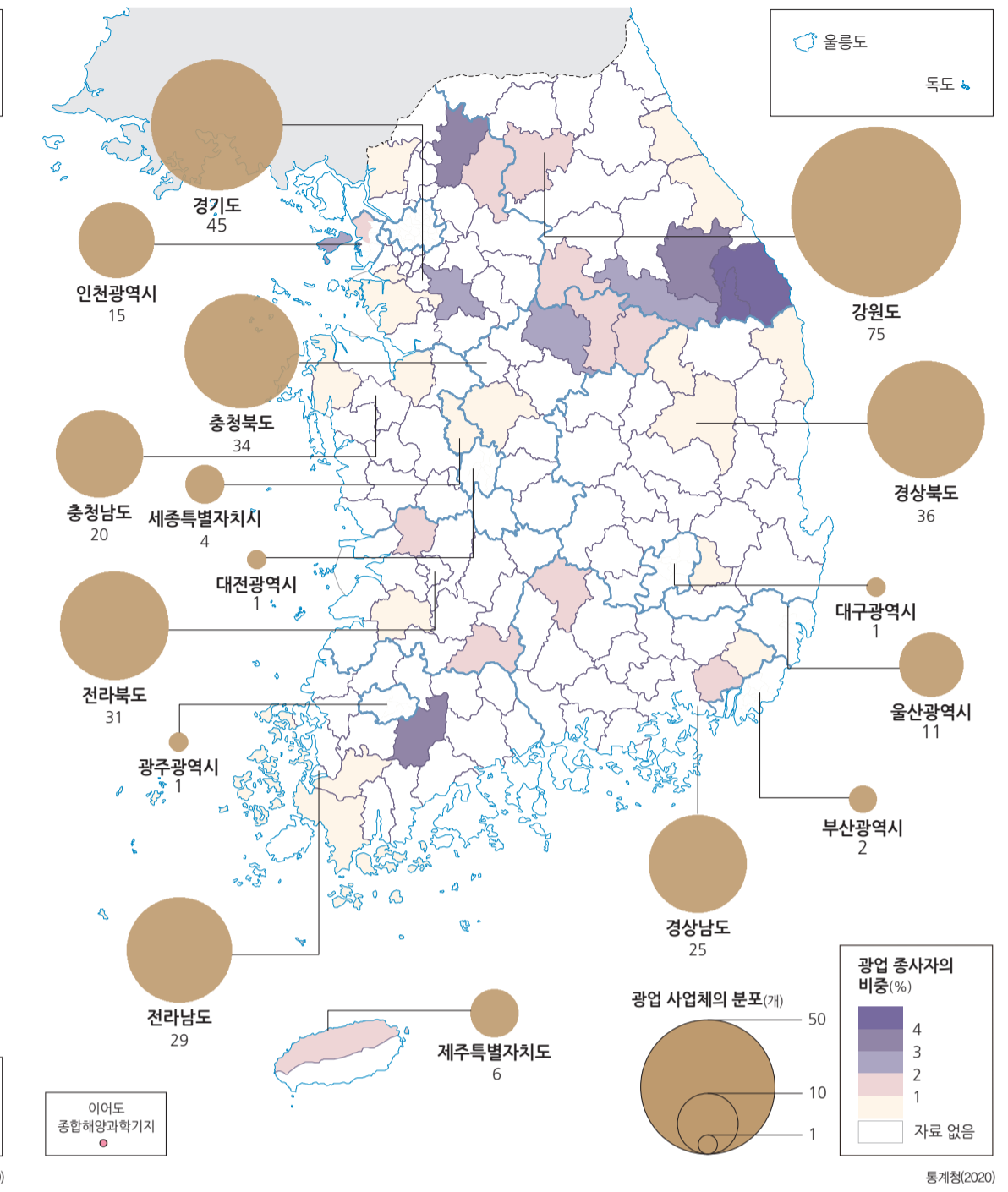
귀농 전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20.4%로 가장 많고, 서울 15.6%, 광주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농인이 전체의 41.5%(5,212명)를 차지한다. 귀어 전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24.1%로 가장 많고, 인천 15.9%, 서울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어인이 전체의 54.2%(524명)를 차지한다. 귀촌 전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25.5%(121,792명)로 가장 많고, 서울 14.4% (68,849명), 경남 7.3%(34,821명)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전체의 44.2%(211,079명)를 차지한다.

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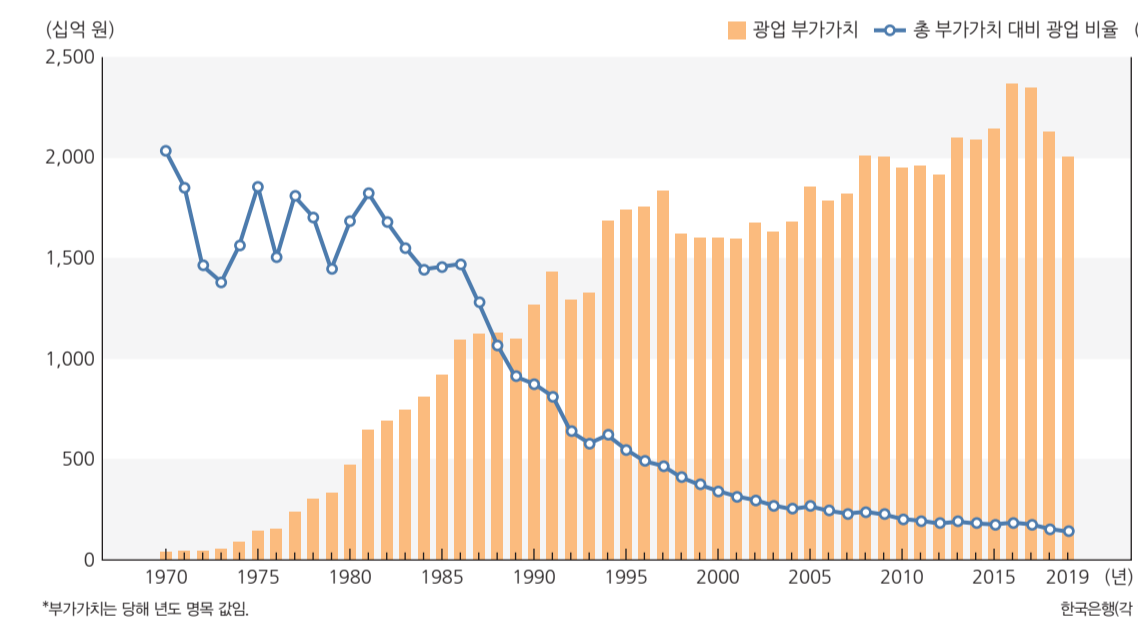
광업 생산액(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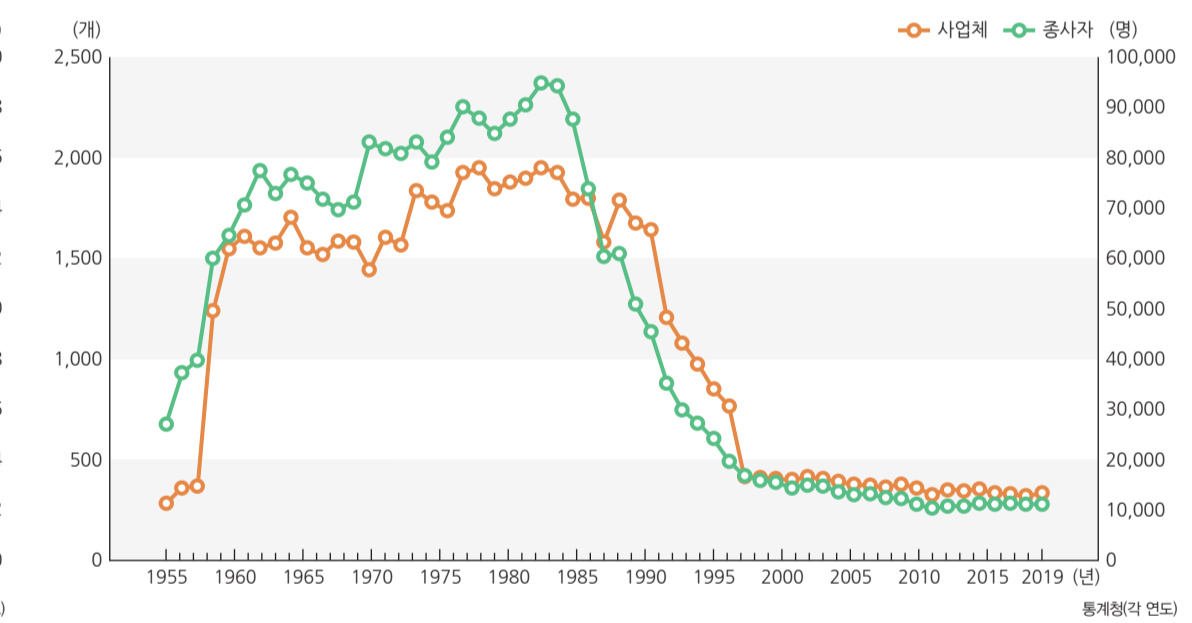
광업 사업체와 광업 종사자의 분포(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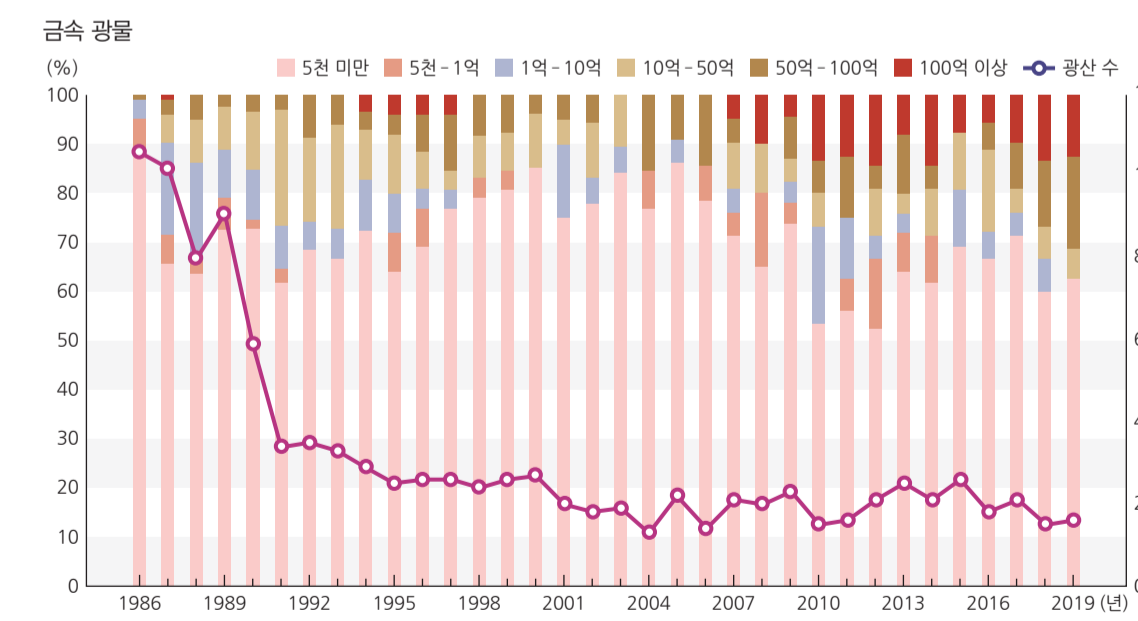
광업의 부가가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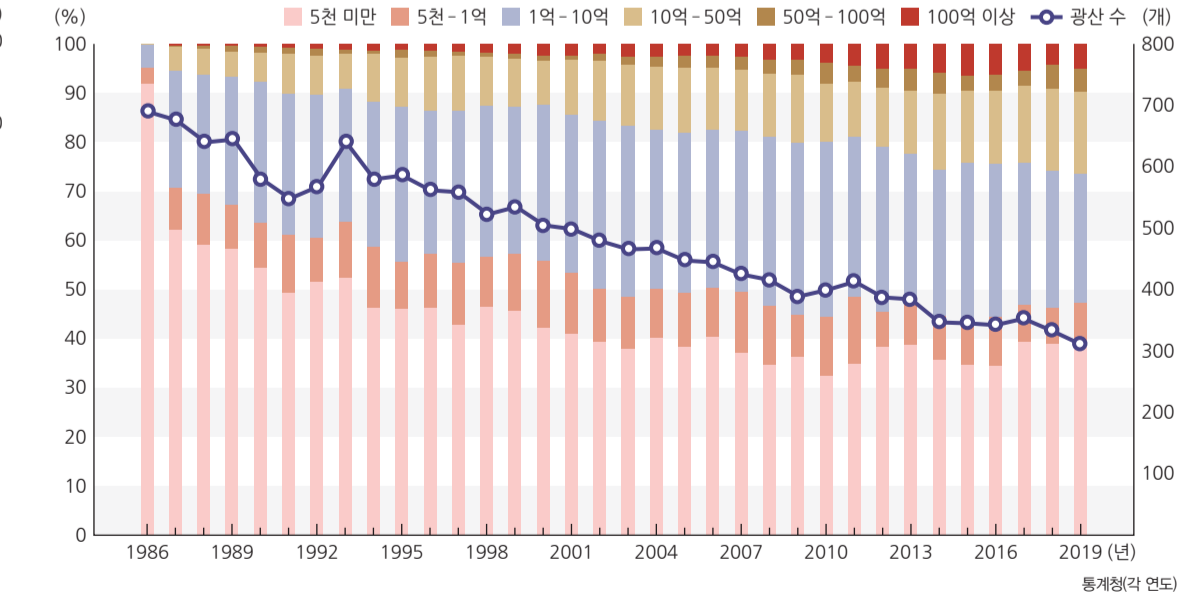
광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변화



매출 규모별 광산 수의 변화



비금속 광물



2020년 우리나라의 가행 광산 수는 총 310개(금속광 20개, 비금속광 286개, 석탄광 4개)로 가행 광산의 대부분은 석회석류 광산(98개)과 고령토류 광산(78개)이며, 그 외에 규석 광산(26개), 장석 광산(20개) 순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시·도별 광업 생산액 분포에서 비금속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행 광산이 분포하고 있는 강원, 경기, 경북, 충북을 중심으로 광업 사업체와 종사자가 집중 분포한다.

우리나라 광업은 석탄 중심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 중심 에너지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빠르게 쇠퇴하였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광업의 비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광업 부문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인 광업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당해 연도 명목 값 기준으로 1970년 약 415억 원이었던 광업 부가가치는 2019년 약 2조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산업에 고려한 총 부가가치 대비 광업 부가가치 비율은 1970년 약 1.6%에서 2019년

약 0.1%로 급감했다. 광업의 쇠퇴와 함께 광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한편 매출 규모별 광산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광업 사업체 수는 줄어들지만, 매출 규모가 큰 광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